

단일매장 국내 첫 '3조 클럽' 기대 신세계백 강남, 마케팅·투자 총력

작년 연매출 2조8398억 기록
하루 유동인구 120만명 '대표상권'
업계별 '3조 매출' 평가 엇갈려
금융 "경기불황 장기화에 악영향"
유통 "소비활기, 올해 가능할 수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019년 매출 첫 2조원을 넘어 이르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2조원 대를 유지했다는 게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강남점은 개점 10년만인 2010년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첫 2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839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년째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성과다.

신세계 강남점은 일일 유동인구가 약 120만명에 육박하고 강남대로까지 연결되는 강남의 대표 상권이다. 또 교통 요충지뿐만 아니라 강남 부촌이 근처에 있어서 일반 고객과 VIP고객 모두를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를 통해 고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세계 백화점이 이같은 기초를 이어가 이르면 올해에 3조원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한 업계별 예측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금융업계는 국내의 경기불

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허리를 졸라매는 가세가 늘고 있어 2조원대를 유지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유통업계는 코로나 해체에 따른 소비 증가가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단일 매장 매출 3조원' 돌파를 이르면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산자부의 지난 4월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2.5%로 조사됐다. 같은 수치라면 올해 3조원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매출 2조8398억원에서 약 5.6%인 1600억원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하나증권은 지난 5월 경, 백화점 기점점들의 성장률을 -1% 내외로 추산하기도 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백화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기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심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신세계는 오히려 올해 마케팅과 전략에 과감히 투자하고 나섰다. 이는 3조원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신세계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가위와 연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거뜬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강남점을 리뉴얼하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신세계 강남점은 새로운 스트릿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켜 강남점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영패션 매장도 새롭게 리뉴얼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美서 해운 경쟁력 알린다

26일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참가
참가 화주에 영업 네트워크 구축 추진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PCTC) '글로벌비스 센추리'호

현대글로벌비스가 북미 최대 벌크 화물 산업 전시회에서 글로벌 해운사업 경쟁력 알리기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3'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산업 및 발전 설비, 자동차, 철강 제품, 건설 및 광산 장비 등 대형 중량 화물을 말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북미 최대 벌크 화물 산업 전시회인 BBA에 참여하고 신규 화주 발굴 등 적극적인 영업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 중장비, 철도 등 해상 운송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 화물 화주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BBA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참가한 화주들

대상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브레이크벌크 수주 실적도 내세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운송 의뢰를 받아 자동차선에 화력·풍력 발전설비를 실어 미국 볼티모어, 독일 브레머하펜 등지로 성공적으로 나르며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 삼아 미국 내륙운송 물류사, 포워더들과 과도 파트너십을 갖춰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씨티은행-제이피모간 제재는 정당"

입찰담합 패소 공정위 승소취지 파기
대법원, 사건 서울고법원 환송 판결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제이스 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제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 위해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 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취업자수 27만명 ↑... 29세 이하는 내림세

통계청, 지난달 총 2867.8만명
보건업 4.9%, 숙박업 5.5% 늘고
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등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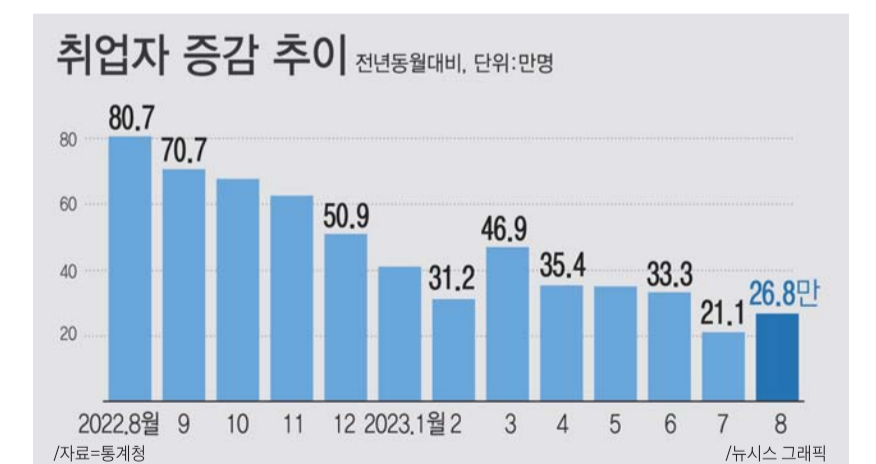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27만 명 이상 늘어나 5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또 29세 이하 및 40대 취업자 수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올해 4월(35만4000명)과 5월(35만1000명), 6월(33만3000), 7월(21만1000명) 등 4개월 연속 둔화한 바 있다. 8월에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7월에 집중호우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가 회복되면서 8월에 반등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더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8000명(4.9%), 숙박 및 음식점



업이 12만1000명(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5만7000명(4.4%)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과 제조업(-6만9000명), 농림어업(-1만9000명), 건설업(-1000명)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은 8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분야별로 제조업 부문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에는 감소 폭이 좀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등 여러 현상에서의 문제들로 수주 부문도 건설 쪽에서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0만4000명 증가했다. 또 50대가 7만3000명, 30대가 6만4000명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의 10만3000명, 40대 6만9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개월과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이로써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 수는 3만6000명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는 160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0.1%)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은 1260만5000명으로 28만1000명(2.3%)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외국인 거래 농지 23% 불법행위 의심

농식품부, 총 138필지 적발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세종=한용수 기자